줏대 제로의 남자가 되어야 할 이유

(딛3:1~15)

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줏대 제로의 남자가 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세 종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나쁜 남자,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젊음의 객기이지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쁘고 마는 겁니다, 젊음의 객기로 한때 좋아할 수 있지만 여자들이 대부분 나쁜 남자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줏대 없는 남자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랑만 하는 남자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주제와 관련해서 줏대 없는 남자, 여자들이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심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한 번 소개해볼게요.
'여자의 반응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남자, 특히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 때, 지나칠 정도로 여자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는 남자는 독자성, 즉 줏대 없는 남자인

경우가 많다’
너무 많이 배려를 해도 문제인가 봐요.
배려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연애하는 젊은 아들들이 참 곤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많이 해도 줏대 없는 남자가 돼버리고, 적게 하면 자기만 아는 남자라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기를 ‘이처럼 줏대 없는 남자는 매사에 쉽게 변덕을 부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해 성심껏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지 못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은 결코 어떤 여자와도 사랑에 빠질 수가 없다’
남자가 뭘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뭡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여자들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기대감이 너무 커요.
남자한테 뭘 그렇게 바랍니까?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지 못할 남자가 여자를 사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뭐 안 사귀고 말아야 되겠죠, 안 사귀고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줏대가 없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을 하지 못한다.
무슨 남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거기다 대고 훌륭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여자도 사귈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요? 말이 되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줏대 제로의 남자를 찾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줏대 제로의 남자를 찾아야 돼요.
물론 줏대 제로의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성공적인 결혼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줏대 제로의 남자를 찾았으면 기뻐하세요, 그러나 아직 다 이룬 건 아니죠.
줏대 제로인 상태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지만 줏대 제로가 아니면 안돼요.
그러므로 살아서 부부생활 하면서 정말 변치 않는 행복감을 맛보고 싶으면 여러 소리 말고 줏대 제로의 남자를 찾으세요.
근데 문제는 줏대 없는 남자를 싫어한다고 그러지만, 줏대 제로인 남자가 이 세상에 더 희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자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줏대 제로라야 궁극적으로 온전한 행복의 삶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완성은 아니어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에게는 줏대라고 하는데 여자에게는 줏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자는 절개라고 그러죠?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삼절에 황진이가 들어가고, 논개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라합이 있어요.
논개와는 너무나 다르지요?
논개는 왜장을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껴안은 다음에 강으로 떨어져 왜장과 함께 죽어버립니다, 놀랍지요, 웬만한 대장부의 심성 갖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절개 아닙니까? 줏대지요.
근데 라합은 자기 나라를 침범할 원수의 나라의 스파이들을 숨겨줍니다.
요거 뭐 스파이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라합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줏대 제로의 여자에요, 도대체 속이 없는 여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생노릇을 하고 살아도 논개 같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스파이를 숨겨줍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줏대가 제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줏대 없는 남자를 싫어한다고요? 몰라서 그래요.
줏대 없는 남자가 진짜 남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남자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한 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말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좀 우리의 이해와 설명이 궁색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왜 그것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나 하면, 지금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 디도서를 쓸 때가 AD 66년 초인데, 그때는 네로가 아직도 황제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제국 전체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확산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로가 통치자고 권세 잡은 자인데, 이들에게 복종합니까, 순종합니까?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했으면 기독교는 남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바울이 로마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왔었고, 풀려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년쯤이면 다시 갇히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인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참뜻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벌써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그것과는 다르게,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다르게 따로 또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는 게 실상 말이 됩니까?
내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인데, 한쪽으로는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통치자가 나에게 복종을 원하는 내용은 선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선합니까?
근데 거기에 복종하면서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준비하라.
그러므로 여기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일반 불신앙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얘기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권세 없고 통치 안 하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인다, 관용을 보인다, 다투지 않는다, 이게 지금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같은 맥락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의 어떤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복종과 순종은, 네로가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박해할 때, 대부분 기독교인으로서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연쇄사건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네로에 대해서 저항감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 그리 잘못됐다고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느냐, 저항감이 생깁니다.
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로마 황제 네로의 정책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때 나로부터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은, 네로가 로마제국 전체에 기독교 박해 정책을 확산시켜가고 있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깁니다,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내 속에서부터 긁어내라는 얘깁니다.
줏대가 뭡니까?
줏대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체계나 확신하는 바에 근거된, 아니면 내 평가와 판단의 기준에 근거된 나의 생각과 신념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밀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에 반한 행동을 황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로황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항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견이 생길 수 있는 모든 평가의 기준을 다 속에서 긁어내라는 얘깁니다.
즉, 속없는 사람이 되고 밸 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복종과 순종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불법을 시키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내 마음에서 내 줏대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뒤 구절에 나오는 말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선한 일을 행할 준비,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관복음에 공히 나오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어찌 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선한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선한 행위입니다.
자, 네로황제가 나라에 기독교 핍박의 정책을 확산시키고 있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죽여 버리는 겁니다, 줏대 제로의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개 제로의 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악 판단이라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또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 빼앗긴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다 자기 나라를 식민지화한 로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반응하면서 대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떡하든지 독립을 시켜야 된다.
주님은 동상이몽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판단하고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구절의 얘기에요.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게 하라!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 생각과 판단, 내 의견을 가지고 이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놓고 반응을 끄집어내게 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평가의 기준들을 다 긁어내서 속없는 사람, 뱰 없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줏대 제로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라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통치자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자의 통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의 줏대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들을 다 제거해버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일들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 얘기를 가정으로 갖고 오면, 가정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에요.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줏대 없는 남편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줏대 없는 아빠가 되어버리는 거고, 아내에 대해서 줏대 없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줏대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줏대가 뭡니까?
끝까지 생각을 관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일단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이 지구가 반대를 해도 60억 인구가 반대를 해도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갑니다.
진짜 줏대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줏대가 나를 통해 나타날 때.
그러려면 내 줏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 살펴보세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백성 선민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반응한 결과로 예언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 뽕나무 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활동을 합니다.
예언활동이란 하나님의 선함의 판단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모세,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처가살이 하면서 일신의 안위를 구하고 있는 상태로 양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줏대 없는 남자에요, 모든 예언자들이 줏대 없는 남자들입니다.
그 줏대 없는 남자들을 모아서 예언활동을 하셨고, 줏대가 강하디 강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줏대 없는 남자로 열한 명을 만드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줏대 있는 가룟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줏대를 지켜나가느라고.
이 세상에 대해, 이 나라에 대해, 이 가정에 대해,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자식에 대해, 상대방에게 그 줏대를 따라서 강요하면서 끝까지 밀고나가는 줏대 강한 남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등지고 팔아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줏대로 밀고나가는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게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고, 이걸 사도바울이 앞에서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 얘깁니다.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다투거나 관용치 못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밸도 없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행태 그대로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향하는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줏대를 싹 없애버리고 내 평가의 기준을 없애버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서 나를 장갑으로 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실 때는 비록 나 한 사람을 끼시는 거지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뚫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올바르게 믿음을 받아들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줏대 제로의 사람들이 됨으로써,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장갑으로 낌으로써 300년 동안 이어져 가

고 있었던 박해를 뚫고 기독교 국가로 로마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엎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쁜 통치자가 들어서서 전횡을 휘두른다, 이럴 때도 교회가 할 일은 먼저 줏대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편승하지도 말고 그걸 반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도 끝까지 읽어보면 이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스스로 택하는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택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스스로 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죽을 때까지 교회가 밟아야 될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연쇄사건을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일만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반복합니까?
그 말씀이 오늘 들려질 때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니까.
내일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내일의 사건으로 재현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이 몸이 있는 이곳에서는 줏대 없는 남자로 세상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입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깁니까?
우리 마음이 육체에 붙어있으면서 육체가 만나는 나라 상황, 가정 상황, 사업장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했던 것, 이게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겁니다.
내가 반응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했습니다.
근데 몸을 통해서 세상을 만난 것처럼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장갑처럼 끼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는 단계로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악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줏대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악한 자가 나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모함하고 중상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저 사람이 뱰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내 줏대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줏대 제로의 남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만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감동 받아서 하는 구제와 충성과 봉사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웃사랑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적 문자를 보고 그 문자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사랑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제대로 되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답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웃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이웃이 더욱 더 spoiled, 망가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웃사랑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웃사랑이라는 문자적인 명령만 기억하고 거기다 맞춰나가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줏대 제로의 남자와 여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절개 제로의 남자와 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확신에 근거한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지구가 꺾지 못할 줏대의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줏대 제로의 남자와 여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과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일을 나타내시고 행하심으로써 줏대 왕짱인 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줏대 제로의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줏대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평가의 기준과 확신과 신념체계들을 다 긁어내서 속없고 뱰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선하신 뜻과 일만이 나타나고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